

정동영 통일부 장관, 몽골 방문,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 면담 등 진행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문중인 몽골에서 6월 5일, △조코브 알다르 자브호랑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 면담 △부리야드 다슈푸레브 산업광물 자원부 사무차관 면담 △에버트재단·SIPRI 초청 만찬 등을 진행했다.
- 정 장관은 알다르자브호랑 장관을 만나 한몽관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남북 모두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온 몽골이 이러한 분야에서 남·북·몽 3자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.
 - 또한, 정 장관은 남북이 함께 추진해 온 ‘겨레말 큰 사전’ 편찬사업을 소개하고, 알타이어의 특징을 공유하는 남·북·몽이 언어의 뿌리를 공동 연구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.
 - 알다르자브호랑 장관은 정 장관의 요청에 지지를 표명하고,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남·북·몽 간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.
 - 정 장관은 부리야드 다슈푸레브 산업광물자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한몽 간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양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,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.
 - 다슈푸레브 차관은 광물분야 협력은 몽골이 가장 중시하는 한몽 협력 분야의 하나라고 언급하고, 한몽간 협력확대를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광물 자원 공동 탐사개발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.

- 또한, 에버트재단·SIPRI 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데 있어서 민·관 공동 다자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
 - 에버트재단·SIPRI가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.

□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최진원 주몽골대한민국대사와 함께 몽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여 헌화했다.

□ 우리 정부는 이번 정 장관의 몽골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,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.

붙임 : 관련 사진(별도 첨부)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2100-2370)
		담당자	주무관	박윤범 (02-2100-2328)

